

테리쿠퍼 지음 | 이지혜 역 | MVP

테리 쿠퍼의 <비판의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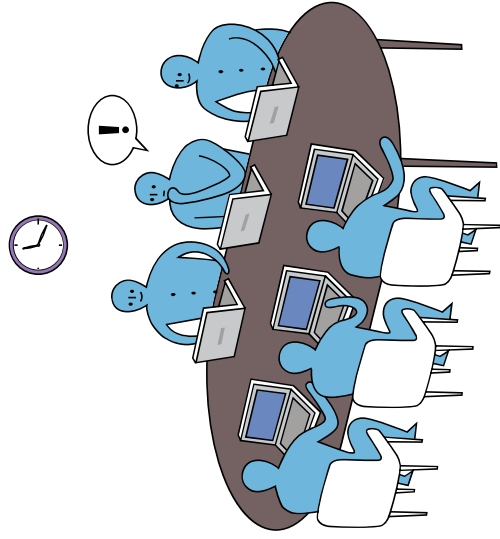
◎ 이경직 (백석대 교수)

사람마다 중요한 순간이 있기 마련이다. 백석대학교 전임이 되기 위해 이사장님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 앞에서 최종 면접을 볼 때였다. 여러 질문이 주어졌고 나름의 대답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장님께서 질문하셨다. “질문을 하는 사람은 비판적이죠?” 이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뉘앙스에 비추어 볼 때, 그리 긍정적인 질문은 아니었다. ‘비판’이라는 단어가 매우 부정적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진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라는 철학의 사명을 부정할 수도 없었다. 당시 이사장님께 드린 대답은 이러했다. “네, 맞습니다. 철학 하는 사람은 비판적입니다. 또 한 비판적이 되도록 요구받습니다. 하지만 비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생각을 깎아 내리거나 무너뜨리고자 하는 비난성 비판이 있으며,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생각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하는 긍정적 비판이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비판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두 번째 비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사장님께서 이 대답에 만족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어쨌어도 알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전임교수로 임용된 것을 보면 그 대답이 그리 나쁘지 않은 않았던 것 같다.

테리 쿠퍼의 <비판의 기술>을 읽으면서 비판에 대한 내 견해가 더 다듬어지고 정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모든 비판을 금지함으로써 발전이나 개인의 기능성까지도 막아버리거나 모든 일에 항상 날카로운 차대를 들이대는 양극단 사이에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우호는 마음으로 상대방이 다치지 않게 비판할 수 있을까? 그런 비판이 있다면 그 비판은 어떤 종류의 비판일까? 이 책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

쿠퍼는 잘못된 비판은 상대방을 자신의 기준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데서 시작한다고 여긴다(14면).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낯설과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나 범주에 따라 그 상황을 정리하고 나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 상황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게 되면서 마음이 안정되는 셈이다. 낯선 곳에 처음 도착한 여행객이 느끼는 감정은 그 동네에서 조상 때부터 살아온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과는 다르다. 하지만 새로운 곳에서 익숙한 것들을 발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안정감을 얻는다. 이를 테면 낯선 인도의 도시에서 패도널드를 발견했을 때, 그 매장에서 얻었던 평안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감은 상대방을 자기 방식대로 자기 기준에 맞추어 이해할 때 얻게 되는 것으로, 현실을 정확히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인도를 여행하면서 가는 곳마다 패도널드에서만 식사하는 사람은 인도를 참되게 체험하고 이해했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낯선 상황을 자기 기준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새롭게 판단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은 비록 안정감은 충분히 누리지 못하더라도 더 성숙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쿠퍼에 따르면 비판적인 사람은 자기 기준을 갖고 상황을 통제하려는 사람이다. 비판적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도 자기를 포함한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는 사람을 거부하기 위해 자기 기준을 사용하는



사람이기도 하다(18면). 권위주의에 반발하는 진보 진영에서 권위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21면).

쿠퍼는 우리 모두가 비판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문해력이 시작된다고 주장한다(24면). 비판주의는 도덕적 우월주의와 지적 우월주의로 나타나는데(25면), 예수님께서 비판을 금하신 것은 우리 자신의 기준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일종의 우상 숭배에서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었다(26면). 비판에 “남은 임신시키고 자기를 강화하는”(29면) 경향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또 비판주의는 남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나의 잘못을 감추는 역할을 하기에 자신을 비판 대상으로 삼지 않으려는 우상 숭배를 범하게 된다(30면).

하지만 쿠퍼는 비판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윤리적 잘못은 비판받아야 한다. 핵심은 사람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행위를 비판해야 한다는 것이다(37면). 진정한 비판은 상대방의 인격을 배려하며, 상대방의 행위가 잘못되었더라도 상대방의 동기를 불신하지는 않는다(39-40면). 따라서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마음과 어러움에 공감할 수는 있다(43면). 진정한 비판은 자기의 견을 보류하고 상대방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상대방의 생각을 편견 없이 들어주는 위험과 그에 따른 두려움을 감수하는 것이다(50면). 쿠퍼가 비평적 사고를 부정적 사고가 아니라 신중한 사고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52면).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안정감을 주고 더 된 하더라도,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안정감을 포기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진정한 비판이다(54면).

쿠퍼에 따르면 자기 기준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상대방의 생각을 그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사람은 오만한 사람이다. 이러한 오만은 그의 안정감과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참된 자신감은 오만이 아닌 겸손에서 나오는 것이다(59면). 오만한 사람에게

